

청년들을 위한 주간 학습: 제 5 과

제목: 자신보다 더 큰 삶을 살기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1. 거룩함은 개인적인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거룩함의 특징이다.
2.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정의를 쫓고 학대 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 성구:

이사야 58:1-12

미가 6:1-8

필요 물품:

성경

종이

펜 또는 연필

학습 배경:

나는 결국엔 양쪽의 끝을 맞춰야 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내 달력엔, 예정된 혼돈의 꼭대기에 다다르게 할 헛된 시도들이 난잡하게 갈겨써져 있다. 이는 이따금씩 기록해야 하는게 내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결혼 계획 짜기를 좋아한다는 사실과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척 가장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도 아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려 노력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끔씩은 두뇌 계발을 위한 크로스워드 퍼즐도 하려 한다. 교회에서는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음악 동아리의 회원이다. 향이 좋은 커피 한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기도하기를 즐긴다. 나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때로는 (그리고 이에 대해 확신시켜 줄 다수의 사례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놀리시곤 한다. 내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비웃으신다는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다듬기 위해 삶의 자잘한 일들을 정렬하시길 즐기시는 것 같다는 말이다. 나는 그것을

‘놀리신다’고 일컫는데 그 이유는 때때로 어떤 메시지가 다 끝난 이야기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한쪽 모퉁이에서 내가 씨름할 또 다른 일들을 상기시키며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나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모든 것이 (그래, ‘거의’ 모든 것이 라고 해두자) 좋은 상태다. 그러나 너무나 쉽사리 나 자신의 드라마에 빠지곤 한다. 내가 주연인 일인극을 연기하고 있다. 일, 가족, 개인용무, 교회...이렇게 반복되는 드라마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룩함’에 대한 이 과를 집필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피식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을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내 영혼에 지금껏 속삭이셨던 부분이 아닌가 말이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종종거리는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 긴 시간을 보냈다. 내가 보기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한 빠른 속도의 삶을 조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한 친구가 내게 해준 말을 잊을 수 없다. 이 특별한 친구는 유럽인이었는데, 우리의 과제 지향적인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건넸지만, 대화를 나누려 잠시 멈추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렇게 내겐 참 낯설었어.”

어떤가? 그는 정확히 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삶을 위해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 우리 문화와는 반대되는 것이다.

‘날마다 성인(聖人)’이라는 저서에서 짐 험튼은 거룩함을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도록 도전을 준다. 그는 거룩함이란 우리 이웃을 위한 정의, 그리고 상처입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절대로 별개의 것일 수 없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정의와 긍휼은 친숙하지 않은 개념일 뿐만 아니라 종종 오인되곤 한다. 정의란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이다. 긍휼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귀 기울여주는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넬슨 만델라와 간디가 추구했던 그러한 이상(理想)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전 우주를 사랑하시는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올바른 요구(정의)에 대해 회복시켜주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 이웃의 깊은 상처를 돌보기(긍휼)를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정의와 긍휼을 통한 대접의 중요한 요소들이며, 이방인, 고아, 과부 등 약자들을 위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다. 주님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접하기에 힘쓰라는 과제를

권고하셨음은 말할 것도 없다.

성결의 전통 안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나는 거룩함이란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삼가는 것이라고 배웠다. 불행히도 그러한 것들의 목록까지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 결과

내 대학시절은 거룩함의 의미에 대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소망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체론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덕분이다.

추측컨대 오늘날 우리 청년들 중 다수도 거룩함의 개념에 대해 같은 오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서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기회가 주어졌다.

즉, 거룩함이란 단지 금지와 명령의 종합세트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향해 성장한다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 과에서 성경 본문은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에 대해 정면으로 공격한다.

이사야 58 장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단지 거룩해 보이려는 종교적인 행위”를 초월한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햐튼 74).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행위의 유형을 분명히 묘사해놓으셨다. 즉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을 교회 밖으로 끄집어 내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미가서 6 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신의 외형적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사심 없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길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와 긍휼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들은, 내 정신 없는 달력에 포함된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모르겠다. 지금으로서 내 기도는 성령이 내 주의를

환기시키셔서 인생길을 갈 동안 내 발 밑의 땅만 쳐다보던 눈을 들어서, 타인의 얼굴들을

마주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할 뿐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나’인 것 보다 훨씬 큰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시간을 들여 매일 긍휼과 의를 실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라!

실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2 천년 넘는 세월 동안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의

혁명을 일으켜보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걸음을 멈추자. 주위를 둘러보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어 우리

자신보다 좀더 큰 사람이 되어보자. 그리고 학생들을 참여시켜 함께 이 여행길을 즐겨보자.

학습

시작

“난 한번도 안 해 봤어” 게임

이 게임을 통해 그들이 해온 소위 ‘그리스도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당신이 하나의 범주를 발표할거라고 설명한다. 각 범주 안에서 두 세 학생들에게 그들이 이제껏 한번도 안 해 본 어떤 것에 대해 말하도록 한다 (아래 예 참조). 일단 한 학생이 “난 한번도 ~ 안 해 봤어”라고 말하면, 그 방안에서 그 활동을 해 본 사람은 새알 초콜릿 등 작은 사탕을 먹게 된다. 아래 범주를 사용하되 생각나는 대로 추가해도 좋다.

- **음식** (예: 난 한번도 생선초밥 안 먹어 봤어)
- **과격한 운동** (예: 난 한번도 파도타기 안 해 봤어)
- **여행** (예: 난 한번도 그랜드 캐년에 안 가봤어)
- **학교 또는 과외활동** (예: 난 한번도 수학 시험에서 떨어져 본 적 없어)
- **자선 활동** (예: 난 한번도 무료급식소에서 봉사 안 해 봤어)
- **“그리스도인” 활동** (예: 난 한번도 성경 통독 안 해 봤어)

게임 후 다음에 대해 토론해 본다:

- 한 활동을 끝마쳤기 때문에 사탕을 먹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특히 마지막 두 범주에 속하는 일을 완료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이 생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로운

충족에 대한 자기자신의 느낌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선한 일”을 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하겠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 “그리스도인” 활동을 하려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이행과정에서, 예컨대 다음 사항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할 때,

선한 행동들을 하거나 그러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헌신이나 때때로 의복들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함의 본질은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을 의미한다. 즉 이웃을 위한

정의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긍휼을 좇는 것이다.

메인 코스

말씀 탐구

학생들에게 이사야 58:1-12 절을 펴도록 한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이 불안정했을 때

쓰여진 것임을 설명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성전에서는 제물을 드렸으며, 돌아서면 다시 퇴폐적이고 심지어는 파괴적인 생활양식을

살았다. 한 두 학생에게 1-12 절을 크게 읽도록 한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 1-5 절을 다시 큰

소리로 읽게 한 후, 다같이 아래 사항에 대해 토론하라 :

• 그 백성들의 행동을 묘사해보라.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등, 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제멋대로였다. 돌아서면 어느새 사람들을 착취하고 싸우고 헐뜯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들의 삶의 다른 영역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속에서 독선을 보셨다. 그 백성들이 위선을 거의 경멸하셨다 (5 절을 보라).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요점을 말해준다, 즉 이 백성들은 금식과 기도 같은 올바른 종교적 행위를 모두 행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나머지 부분들은 타인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돌보는데 소홀했으며 자기이익에 급급했다.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들을 보고 알아주시지 않냐며 감히 질문했다.

이제 한 학생에게 6-12 절을 크게 읽도록 한다. 그리고 아래 사항에 대해 토론한다:

•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셨는지 묘사해 보라. 학생들에게 6-7 절과 9 절하반절-10 절상반절을 통해 정의와 자유를 좇고 짓밟힌 이들에게 공급해주며 모든 이를 용납하는 것임을 발견케 한다.

• 금식에 대해 보통의 경우 우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구절이 그러한 견해를

바꾸었는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금식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위의 헌신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금식”이란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행하는 매우 외식적인 행위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 이러한 유형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8 절~9 절 상반절, 그리고 10 절 하반절~ 12 절을 읽어보라. 기쁨, 치유, 보호에 대한 절이다. 주님은 도움을 청하는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

• 이 절은 “거룩함의 결과는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늘 귀결되어야 한다” (헨튼 73)는 경구와 어떻게 매치되는가?

즉, 거룩함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들의 연속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잘 살도록 도와야 한다.

‘날마다 성인’ (헨튼 76-77)으로부터 아래에 대해 서로 나누도록 한다: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아버지이고 성결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 중 하나였던 요한

웨슬레는 이 구절을 특히 좋아했는데 우리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쓸 우리의 재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되 단지 그의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단순히 위탁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웨슬레는 연명하기 위한 필수품 – 즉 음식, 옷, 그리고 잠자리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재물’이라고 정의했다. 웨슬레에 의하면 그 밖의 모든 것은 그것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쓰여야 했다. 한번 생각해보자.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사고 옷가지들을 충분히 산 후에 당신이 버는 모든 것은 궁핍한 자를 위한 것이다. 사실 웨슬레는 하나님이 그의 재물과 자원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그 자원들을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웨슬레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항상 타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이것이 예배의 행위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었다.

토론할 사항:

- 이 구절을 들은 후 어떠한 것을 느꼈는가?
- 이 말씀에 대해 도전을 받았는가?
- 학생신분으로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당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다시 ‘날마다 성인’ (험튼 77)로부터 아래에 대해 나누도록 한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된 컨셉 중 하나는 이것이다: 거룩함을 단지 우리 삶의 종교적인 영역, 즉 교회, 청년회, 선교 여행, 수련회 등에 국한된 것으로 격하시킬 수는 없다. 우리 삶 전체, 하나 하나의 영역에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다.

질문해보라, 우리 삶에 있어 좀 다른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데 있어, 진정한 거룩함이 각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학생들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미가 6:1-8을 펴도록 하고 한 학생에게 그 구절을 큰 소리로 읽게 한다. 그리고

아래 사항을 토론해보자:

- 이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과 어떻게 유사한가? 두 구절에서 모두,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했고 주님 전에 점점 더 인상적인 헌물들을 가지고 나왔다. 두 곳에서 모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 타인을 위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다.

- 당신이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들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의 “거룩한 습관들”, 예컨대 성경 읽기, 매일 기도, 경배와 찬양, 청년회 참석 등을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그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이러한 것들에 의지할 수는 없다.

• 특별히 이 구절에서,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8 절을 보라:

의롭게 행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나가는 것이다.

• 미가서 6:8 절이 주는 메시지는 “네 이웃에게 정당히 행하고 사랑 안에서 공홀히 여기고

충성하며 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공홀히 여기고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날마다 성인’ (헨튼 80)에 인용된 헨리 노웬의 ‘공홀’로부터 발췌한 다음 글에 대해

나누라:

“공홀은 우리에게 상처 입은 곳에 가고,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며, 깨어짐과 두려움, 혼란,

애통을 함께 나누라고 명한다. 공홀은 우리로 하여금 불행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울며

외로운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도전을 준다. 공홀은 우리가

약한 자와 함께 약해지고 상처 입은 자와 상처를 같이 하고 힘 없는 자와 같이 힘이

없어지기를 요구한다.” 이 말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공홀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만약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가졌다면 곧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한 정의를 좇게 될 것이다.

헨튼은 정의를 “모든 사람이 그들에 속한 것들을 소유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갖게 될 것이라 확신함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바꿔 말하면, 정의란 “사물을 정당한 방법대로 소유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헨튼 78, 80).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대답하게 한다.

당신이 이동할 준비가 됐을 때, 이렇게 말하라. 타인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좇고 긍휼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부름 받았다.

사후 활동

성경구절을 다시 읽는다.

종이와 펜 또는 연필을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생들에게 맨 위 가운데에 “무엇을 가지고 올까?”라고 쓰고 그 페이지의 1/3 쪽 내려와서 “무엇이 선한지 알고 있음 : 정의”라고 쓴 후 2/3 쪽 내려와서는 ‘긍휼’이라고 쓰게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미가서 6:8 절을 떠올리게 하거나 다시 읽게 한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페이지의

빈 공간을 채워나가도록 지시한다:

•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갖고 나오는 특정한 “영적인” 관행은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관행 중 일부는 성경, 기도, 십일조와 같이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자체가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의 표시는 될 수 없다.

• 거룩하도록 지어진 존재로서 나는 매일의 삶에서 타인을 위한 ‘정의’를 어떻게 좇을 수 있을까?

• 거룩하도록 지어진 존재로서 나는 어떻게 ‘공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몇몇 학생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발표해서 나머지 학생들과 나누도록 한다. 이는 그들의 삶에서 정의를 좇고 일상 상황에서 공홀을 베풀도록 삶을 변화시키는데 대해 함께 영감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무리

아래 내용을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마무리 한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정의를 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 공홀을 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셔서 다른 사람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게 당신과의 관계로부터 가능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